

# 03

P 수업PPT

**단원 소개** 한자 문화권 나라인 중국의 역사 상식을 넓히고, 성어를 통해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지도 팀** 본문 성어를 역사 시대 순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되, 중국 역사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역사 이야기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은 중국 역사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초와 한, 그리고 위·촉·오 삼국의 전쟁과 같이 중국 역사상 흥미진진한 장면에서 유래한 성어를 배우며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 보자.

오 월 등 주  
吳越同舟

(나라 이름 오, 나라 이름 월, 갈을 등, 배 주)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배에 타고 있음.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

(가리킬 지, 사슴 록, 할 위, 말 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 뒷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지 록 위 마  
指鹿爲馬

2 1 4 3

**Q&A** Q. 오나라와 월나라는 왜 원수 관계인가요?

A. 오(吳)나라와 월(越)나라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춘추 시대 두 나라는 중원의 패자가 되기 위한 영토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둘의 원한 관계는 '와신상담'의 주인공 오왕 합려(?~B.C. 496)와 월왕(?~B.C. 465) 구천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 오왕 합려가 월나라를 공격했다가 부상을 입고 죽게 되자 아들 부차에게 월나라에게 당한 것을 잊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 부차는 가시가 많은 장작 위에서 자며(臥薪)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이때 월왕 구천은 부차가 복수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나라를 공격했다가 대패하여 부차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겨우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쓸개를 길어 두고 핏오며(嘗膽) 복수를 다짐했고, 20여 년 후 오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호해(胡亥): 중국 진(秦)나라 제2대 황제로 이세 황제(二世皇帝)라고 함.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고 환관 조고(趙高)의 전횡을 방임하여 민심을 잃어 진(秦)을 멸망의 길로 몰아 넣었다. (재위 B.C. 210~B.C. 207)

조고(趙高): 중국 진나라의 내시(?~B.C. 207). 시황제가 죽은 뒤에 시황제의 장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둘째 아들 호해(胡亥)를 이세 황제로 삼았다. 그 뒤, 이세 황제를 죽이고 자영(子嬰)을 즉위시킨 후에 정승이 되어 권력을 휘두르다 자영에게 일족이 살해되었다.

수업 진도 체크

반	체크	반	체크	반	체크	반	체크

- 역사 이야기를 담은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등 배, 물 수, 어조사 지, 진 칠 진)  
물을 등지고 치는 진.  
→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죽기  
를 각오하고 맞섬.

배 수 지 진  
**背水之陣**  
2 1 3 4

(넷 사, 방위 면, 나라 이름 초, 노래 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사 면 초 가  
**四面楚歌**  
1 2 3 4

도 원 결 의  
**桃園結義**  
1 2 4 3

(복숭아 도, 동산 원, 맺을 결, 뜻 의)  
복숭아나무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음.  
→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목적을 위해  
행동을 같이할 것을 약속함.

음 참 마 속  
**泣斬馬謖**  
1 3 2

(울 음, 벨 참, 말 마, 일어날 속)  
울며 마속의 목을 벨.  
→ 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

교사용 자료실

新

- 새로운 한자 쪽지 시험
- 새로운 한자 쓰기 노트

- (口17) \*吳 오 나라 이름  
(走12) 越 월 뛰어넘다, 나라 이름  
(舟16) 舟 주 배 方舟(방주)  
(鹿111) 鹿 록 사슴 馴鹿(순록)  
(肉19) 背 배 등 背泳(배영)  
(阜10) 陣 진 진 치다 陣法(진법)  
(木13) \*楚 초 나라 이름  
(木10) 桃 도 복숭아 黃桃(황도)  
(斤11) \*斬 참 베다 斬首(참수)  
(言17) \*謖 속 일어나다

새로 나온 한자 사전

- 진(陣): 군사들의 대오(隊伍)를 배치한 것.  
예) 雁陣(안진), 鶴翼陣(학익진)

Q&A Q. 마속에 대해 더 알려 주세요!

A. 마속(馬謖, 190~228)은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장수였어요. 자는 유상(幼常)입니다. 촉한의 시중(侍中: 천자의 좌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고문(顧問)에 응하는 벼슬)이였으며, 백미(白眉)의 고사로 유명한 마량(馬良, 187~222)의 다섯 형제 중 막내입니다. 제갈량(諸葛亮)은 마속의 재능을 인정하여 높이 평가했는데, 유비는 마속을 말미 앞서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어요. 228년 제갈량이 북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魏)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기산에 군대를 주둔하면서 마속이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마속은 길목을 지키라는 제갈량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산 위에 진을 치는 등 독자적인 행동을 취했다가 위의 장수(張郃)에게 대패하였고, 마속은 군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유비(劉備):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제1대 황제(161~223). 자는 현덕(玄德). 시호는 소열제(昭烈帝). 후한 영제(靈帝) 때, 황건적을 쳐서 공을 세우고, 후에 제갈량의 도움을 받아 오나라의 손권과 함께 조조의 대군을 적벽(赤壁)에서 격파하였다. 후한이 망하자 스스로 제위에 오르고 청두(成都)를 도읍으로 삼았다. (재위 221~223)

장비(張飛):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무장(?~221). 자는 익덕(翼德).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桃園)'에서 결의하고, 왕인 유비를 항상 섬겼던 용장(勇將)으로, 후에 파서(巴西) 태수가 되었다.

관우(關羽):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무장(?~219). 자는 운장(雲長). 장비, 유비와 의형제를 맺고 적벽전에서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뒤에 위나라와 오나라의 동맹군에게 패한 뒤 손권에게 잡혀 살해되었다.

① 馬謖 마속: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무장.



원문 깊이 보기

• 《사기》 속 지록위마  
(八月己亥) 趙高欲爲亂 恐群臣不聽 乃  
先設驗 持鹿獻於二世曰 馬也 二世笑曰  
丞相誤邪 謂鹿爲馬 問左右 左右或默  
或言馬以阿順趙高 或言鹿者 高因陰中  
諸言鹿者以法 後群臣皆畏高(좌우(신하)  
중에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라고 말하여 조고에게 아부하여 따랐  
고 어떤 사람은 사슴이라고 말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조고가 몰래 사슴이라고 말  
한 여러 사람들을 중상하여 법으로 처벌  
하니 이 뒤로는 여러 신하들이 모두 조고  
를 두려워하였다.)  
-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陰: 몰래, 은밀히 \*中: 중상(中傷)하다

• 《삼국지연의》 속 도원결의  
次日 于桃園中 備下烏牛白馬祭禮等項  
三人焚香再拜而說誓曰 念劉備 關羽 張  
飛 雖然異姓 既結爲兄弟 則同心協力  
救困扶危 上報國家 下安黎庶 不求同年  
同月同日生 只願同年同月同日死 皇天  
後土 實鑒此心 背義忘恩 天不共戮(이  
튿날 복숭아 동산 안에서 유비가 검은 소  
와 흰 말을 바치고, 세 사람이 향을 피우  
고 두 번 절하며 맹세하여 말하길,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은 다르지만, 이미 결  
의하여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백성의 어려움을  
구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부축하여 위로  
는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합니다. 한낱한시에 태  
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낱한시에 죽기를 원  
하니 천지신명께서는 진실로 저희 뜻을  
살피시어 의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잊는  
자에겐 하늘이 죽음을 주소서.")

새로 나온 한자 사전

- 태(胎): 태반이나 탯줄과 같이 태아를 돌  
려싸고 있는 여러 조직.
- 오장(五臟):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다섯 가지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목다: 일정한 때를 지나서 오래된 상태가 된

新

豚 돈 돼지 (豕 11)	肝 간 간 (肉 17)	腸 장 창자 (肉 13)	肩 견 어깨 (肉 8)	肺 폐 허파 (肉 8)
胞 포 태, 세포 (肉 9)	泳 영 헤엄치다 (水 8)	胃 위 밥통 (肉 9)	臟 장 오장 (肉 22)	腦 뇌 뇌 (肉 13)
裏 리 속 (衣 13)	腰 요 허리 (肉 13)	痛 통 아프다 (广 12)	摘 적 따다 (手 14)	屈 굴 굽히다 (尸 8)
超 초 뛰어넘다 (走 12)	簡 간 대쪽, 간략하다 (竹 18)	複 복 겹치다 (衣 14)	雜 잡 섞이다 (隹 18)	具 구 갖추다 (八 8)

Q&A Q. '오월동주'가 원수는 왜나보다리에서 만난다는 뜻인가요?

A. 원수는 왜나보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은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오월동주는 단순히 원수를 만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원수라도 상황에 따라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吳越同舟 오월동주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배에 타고 있음.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

원문 夫吳人與越人相惡也 當其同舟而濟 遇風 其相救也如左右手 - 《손자》 〈구지(九地)〉

指鹿爲馬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 농락(籠絡): 새장과 고삐라는 뜻으로, 남을 교묘한 피로 휘잡아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함.
- 권세(權勢): 권력과 세력. → 남을 복종시켜 지배하거나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

背水之陣 배수지진

물을 등지고 치는 진. →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맞섬.

유래 한(漢)나라의 한신(韓信)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군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힘을 다해 싸우도록 하여 조(趙)나라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함.

원문 兵法不曰 陷之死地而後生 置之亡地而後存 且信非得素附術士大夫也 此所謂驅市人而戰之 其勢非置之死地 使人自爲戰 今予之生地 皆走 寧可得而用之乎 - 《사기》 〈회음후 열전(淮陰侯列傳)〉

四面楚歌 사면초가 孤立無援(고립무원):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四顧無親(사고무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유래 한(漢)나라 군사들이 밤중에 사방에서 초(楚)나라 노래를 부르자 고향 생각에 사기가 떨어진 초나라 군사들이 도망가 패배한 데서 유래함.

원문 項王軍壁垓下 兵少食盡 漢軍及諸侯兵圍之數重 夜聞漢軍四面皆楚歌 項王乃大驚曰 漢皆已得楚乎 是何楚人之多也 - 《사기》 〈항우 본기(項羽本紀)〉

桃園結義 도원결의

복숭아나무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음.

→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목적을 위해 행동을 같이할 것을 약속함.

- 의(義): 「1」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2」 혈연이 아닌 사람과 맺는, 혈연과 같은 관계.

泣斬馬謖 읍참마속

울며 마속의 목을 벤. → 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

유래 삼국 시대 촉(蜀)나라 제갈량이 군령을 어겨 가정(街亭) 싸움에서 크게 패한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참형에 처하였다는 데서 유래함.

원문 建興六年 亮出軍向祁山 時有宿將魏延 吳壹等 論者皆言以爲宜令爲先鋒 而亮違衆拔譔 統大衆在前 與魏將張郃戰於街亭 爲郃所破 士卒離散 亮進無所據 退軍還漢中 譔下獄物故 亮爲之流涕 良死時年三十六 謖年三十九 - 《삼국지》 〈마량전(馬良傳)〉

Q&A Q. '장(腸)'과 '장(臟)'은 같은 건가요?

A 장(腸) = 창자. 큰창자(大腸)와 작은창자(小腸)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장(臟) = 내장(內臟). 척추동물의 가슴안이나 배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위, 창자, 간, 콩팥, 아자 따위가 있다.

## 1 부수가 같은 한자 - 肉(月) (고기육/육달월부): 신체 부위의 명칭이나 상태에 관한 뜻을 가진.

· 肉 육 고기	· 豚肉 돈육	· 肝 간 간	· 肝腸 간장
· 肩 견 어깨	· 比肩 비견	· 肺 폐 허파	· 肺胞 폐포
· 背 배 등	· 背泳 배영	· 胃 위 밥통	· 胃臟 위장
· 腦 뇌 뇌	· 腦裏 뇌리	· 腰 요 허리	· 腰痛 요통

참고 신체를 나타내는 한자

頭(두) 머리, 首(수) 머리, 頸(경) 목, 腹(복) 배, 背(배) 등, 胸(흉) 가슴,  
手(수) 손, 指(지) 손가락, 足(족) 발, 脚(각) 다리, 肩(미) 눈썹, 額(액) 이마 등

## 2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 指 지 (1) 가리키다	· 指摘 지적 指示(지시)	· 越 월 (1) 뛰어넘다	· 超越 초월 卓越(탁월)
(2) 손가락	· 屈指 굴지 稟指(약지)	(2) 나라 이름	· 吳越 오월

어휘 뜻풀이

- 간장(肝腸): '1. 간과 창자. '2. 애나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간장을 태우다 / 간장이 녹다 / 간장을 말리다 / 간장이 끊어지다
- 비견(比肩):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닮고 닮을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하게 함.

글자: '손가락을 꼽는'다는 뜻으로, 매우 뛰어나 수많은 가운데서 손꼽히는 것을 말함.

## 3 뜻이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어휘

單純(단순)

· 簡單 간단 ⇔ 複雜 복잡
· 陳腐 진부 ⇔ 斬新 참신

- 진부(陳腐):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 못함.  
⇔ 참신(斬新/斬新): 새롭고 신뜻함.

· 구체(具體):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춘.

⇔ 추상(抽象):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추출하여 파악하는 작용.

· 具體 구체 ⇔ 抽象 추상
· 擴大 확대 ⇔ 縮小 축소

성어의 유래

- 합종책(合從策)과 연횡책(連橫策): 합종(合從)은 소진(蘇秦)이 주장한 외교 정책으로, 서쪽의 강국 진(秦)나라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북으로 위치한 한(韓), 위(魏), 조(趙), 연(燕), 제(齊), 초(楚)의 여섯 나라가 동맹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연횡(連橫)은 장의가 주장한 정책으로, 여섯 나라가 종(從)으로 동맹을 맺어 진나라에 대항하지는 합종설에 맞서서, 진나라가 이들 여섯 나라와 횡(橫)으로 각각 동맹을 맺어 화친할 것을 주장하였다.

\* 소진(蘇秦): 중국 전국 시대의 유세가(遊說家)(?~?). 진(秦)에 대하여 산둥(山東)의 6국의 합종(合從)을 설득하여 성공했다.

\* 장의(張儀): 중국 전국 시대 위(魏)나라의 정치가(?~B.C.309). 귀곡 선생(鬼谷先生)에게서 종횡(縱橫)의 술책을 배우고, 뒤에 진(秦)나라의 재상이 되어 연횡책을 6국에 유세(遊說)하여 열국으로 하여금 진나라에 복종하도록 힘썼다.

- 국사무쌍(國士無雙): 한(漢)나라의 명장 소하(蕭何)가 한신을 하고조 유방에게 추천할 때, "한신만은 국사로서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至如信者 國士無雙)"라고 한 데서 유래함.

## 4 역사에서 유래한 성어

· 合從連橫 합종연횡: 합종책과 연횡책. = 合縱連橫 합종연횡  
→ 약자끼리 연합하여 강자에게 대항하거나 강자와 화해함.

· 三顧草廬 삼고초려: 제갈량의 초옥으로 세 번이나 찾아감.  
→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

· 國士無雙 국사무쌍: 나라에서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선비.

· 唇亡齒寒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림.

- 이해 관계가 밀접하여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려움.

· 순망치한(唇亡齒寒):

춘추 시대 말, 진(晉)나라 현공은 궈(虢)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그 사이에 있는 우(虞)나라에 많은 보물을 주며 길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나라 신하 궁지기(宮之奇)는 현공의 속셈을 알고 우왕에게 간언하였다. "궈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옛말에 '수레의 덧대는 나무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輔車相依 唇亡齒寒)'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우나라와 궈나라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에 눈이 먼 우왕은 결국 길을 내 주었고, 후에 궈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현공에게 멸망당하였다. - 《춘추좌씨전》

抽 추 뽑다 (手18)	陳 진 베풀다, 묵다 (阜11)	腐 부 썩다 (肉14)	擴 확 넓히다 (手18)	縮 축 줄이다 (糸17)
橫 횡 가로 (木16)	縱 종 세로 (糸17)	顧 고 돌아보다 (頁21)	* 廬 러 오두막집 (广19)	雙 쌍 두 (隹18)
脣 순 입술 (肉11)	咸 함 다 (口9)	差 차 어긋나다, 사신 보내다 (工10)		